

## <의소분 인수인계서>

### 1. 대본분석

대본 분석을 꼼꼼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대공연의 경우, 대본 분석을 소품/캐릭터 분석으로 나눠 2 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소품들을 확인합니다. 이때 지문이 아니라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소도구들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소도구를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해두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A	B
1	대본	실제 캐스트 대본 활용 (예원, 추이, 윤주, 지수)
2	담배	윤주
3	베개	준원
4	옷걸이	동방 옷걸이 활용, 하은
5	양주 병	동방 소품 활용
6	컵 (투명한 양주용 크리스탈 컵)	동방 소품 활용
7	옷걸이에 걸어 둘 안 입는 의상 (약 10벌)	동방 의상 활용 (1벌), 하은 (3벌), 하윤 (4벌)
8		
9	화장품(팔레트 필수, 최대한 많이 필요, 손)	하은 (1개), 동방 소품 활용
10	카세트 플레이어	하윤
11	카세트	연희
12	가발 (여배우 C)	의소분
13	면장갑	의소분
14	휴지통	의소분
15	흰봉대	의소분
16		
17	아이라이너	의소분
18	화상 타투 스티커	의소분
19	워터 틴트 (피 연출)	의소분

→필요한 소품/ 제공한 사람 순으로 정리하면 어떤 소품이 구해졌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공연이 끝난 후 다시 돌려주기도 쉽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캐릭터들의 나이, 성격, 이미지와 연극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 등을 파악하고 의상이나 화장 레퍼런스들을 찾아 사진으로 정리하면 연출진, 캐스트에게 설명하기 쉽습니다. 의상으로 캐릭터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만큼, 의상의 느낌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레퍼런스를 찾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예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의상을 따로 구매하기 힘들고, 캐스트나 공연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의상을 무대의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레퍼런스를 "누군가의 옷장에 있을법한" 옷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 2. 의상

대본 분석 과정에서 찾은 레퍼런스를 연출진과 캐스트들에게 보여주고 컨펌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의견 조율 후 의소분+연출+캐스트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캐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정한 컨셉을 조율합니다. 대본 분석 후 찾은 초기 컨셉이 연출진이 분석한 캐릭터성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캐스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 컨셉을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캐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의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빌리거나 구매해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둡니다.

예)

여배우 A - 빵모자, (체크)셔츠, 갈색 혹은 짙은 색 골덴/면 바지, 멜빵, 로퍼 (없다면 짙은 색 구두? 운 동화)

여배우 B - 구매 완료 -> 사진 부탁하기

여배우 C - 트렌치 코트, 검은 나시와 속바지 st 검 정 면바지, 메리제인 구두?, 페도라

여배우 D - (하은) 화이트 나시 슬립 + 가디건 / (하 윤) 잠옷 프릴 원피스

이번 대공연에서는 캐스트가 무대에서 환복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에 환복을 하기 용이한 의상으로 준비해 주세요.

## 2. 소품

1 차로 정리해둔 소품 목록을 연출진이나 무대감독에게 컨펌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정된 소품을 구합니다. 동방에 있는 것/빌려야 하는 것/만들어야 하는 것/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예산이 소품을 모두 구매하기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빌리거나

동방에 있는 기존 소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빌려야 하는 소품은 위에 있는 빌려야 하는 의상과 함께 정리해서 구합니다. 이때 ☆반복해서 공연진 단톡방 및 극회 전체 단톡방에 찾는 소품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연진을 대면으로 만나는 경우, 여러 차례 소품 소장 여부를 확인해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매해야 하는 소품은 구매하는 의상과 함께 따로 구매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합니다. 이때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소품 개당 최대 예산과 함께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소품을 따로 제작해야 하므로 위의 소품 분류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분장

미리 필요한 분장과 캐릭터별 메이크업 포인트를 파악합니다. 조명이 켜지면 대부분의 메이크업이 날아가기 때문에 디테일을 꼼꼼하게 잡기보다는 "강렬한 레드 립", "청순한 핑크 블러셔" 와 같이 대략적인 느낌만 파악해주세요.

메이크업의 경우, 가능한 한 캐스트들이나 의소분팀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이 일 년에 2~3 번만 이루어지는 만큼, 메이크업 박스에는 오래된 화장품이 많아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화장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쉐딩, 하이라이터, 아이브로우, 리퀴드 아이라이너, 메이크업 픽서, 투명 파우더, 브러쉬, 음영 섀도우, 대용량 퍼프, 면봉>

브러쉬 같은 경우 메이크업 박스에 대부분이 이미 구비돼 있으므로 공연 전에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쉐딩은 \*진한 색상\*의 리퀴드/스틱 타입 쉐딩을 하나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무대 화장인 만큼 절대! 데일리 메이크업용 쉐딩을 구매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분장 크림 수준으로 진한, 짙은 고동색의 쉐딩으로 구매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중간에 수정 화장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픽서와 파우더로 화장을 고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화장을 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기초를 촉촉하게 하지 않으면 화장이 무너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캐스트들에게 각자 기초를 꼼꼼히 하고 오라고 안내해 주세요.

추가로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보다 두 배, 세 배로 진하게 해야 조명 아래에서 티가 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세요.

이번 공연에서는 상처 및 화상 분장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분장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할로윈 분장용 타투 스티커를 구매하면 많은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어는 <실핀, 고정 스프레이>가 꼭 필요합니다. 공연 중 머리가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4. 당일**

시간에 맞춰 공연장에 와서 메이크업 및 분장을 준비합니다 (9 시에서 10 시) 이때 모든 의소분 팀원이 와서 메이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도와줄 사람을 구하세요. 캐스트가 메이크업을 잘 한다면 기본적인 부분은 본인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컨투어링이나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캐릭터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해서 연출진들에게 컨투어링 조명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컨투어링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체감이 안된다면, 실제 조명 아래에서 컨투어링 진행해도 좋습니다. 본 공연 2~3 시간 전에는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출진 컨펌을 받고 나면 픽서와 파우더 처리를 해 잘 고정해 줍니다. 1 일 2 회 공연이 있다면 1 차 공연 마무리 후 수정 화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 차 메이크업 마무리 후에도 1 명 정도는 남아서 상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